

## 로버트 바노이(Robert Vannoy), 구약 역사, 강의 4

초기 연대기, 창조(창 1:1-2:3)

4. 이 족보에 소개된 숫자는

연대기적 중요성을 갖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연대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업 시간에 언급된 두 기사에서 William Henry Green, BB Warfield가 토론에서 개발한 제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네 가지 명제로 그들의 기사를 요약했는데 그 중 마지막은 “이 족보에 소개된 숫자는 연대순으로 중요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연대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수명과 출산이 시작된 나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5. 연대기의 목적을 위해 창세기 11장에서 연수를 합산한다면

셈은 여전히 아브라함 시대에 살고 있을 것이며 아브라함의 홍수는 292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점부터 시작하여 5년으로 가겠습니다. “만약 창세기 11장에서 연도를 연대순으로 사용한다면 셈은 여전히 아브라함 시대에 살고 있을 것이고 홍수부터 아브라함까지는 292년이 될

것입니다. 연령.” 즉,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연대순으로 사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족보를 분석해 보면 여기에 셈이 있습니다. 그리고 셈은 이 기간을 더하면 아들을 낳는데, 그 기간을 더하면 292년이 됩니다.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자주 행해진 비간격 연대기의 족보를 사용한다면 성경 기록에서 이런 식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홍수 후, 즉 홍수 2년 후의 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셈은 지난 수업 시간에 논의했던 아르박삿을 낳습니다. 따라서 2에 35, 30, 34, 30, 38을 더하고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 거기에는 10개의 링크가 있습니다. 그 합계는 292년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점 까지 나올 것입니다 . 이제 이 1656년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창세기 5장이 있다는 가정하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거기에서 그것을 뺀다면 홍수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불과 292년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 자료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 배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끌려나와 하란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서에는 방주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다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이 근거로 볼 때 노아는 아브라함 시대까지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홍수 후 350년을 살았고 노아의 아들인 셈 자신은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나이가 175세였기 때문입니다. 셈은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 을 낳고 그 후로 5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들 중 거의 모든 사람, 사실 그들 모두는 그 모든 연결을 끝까지 사용한다면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브라함 시대의 그림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기원전 2000년경 아브라함 시대보다 290년 전입니다. 창세기 홍수 기록에 표시된 규모의 메소포타미아 홍수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의 마을 정착지, 도시, 문명에서 추적할 수 있는 연속적인 층을 통해 홍수가 중단되었다는 징후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홍수 퇴적물이 있지만 지역적인 작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한 번, 다른 곳에서 한 번. 290년 이내에, 심지어 그 이전에도 모든 문명에 영향을 미친 어떤 종류의 일반적인 홍수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점은 과거로 돌아가면 메소포타미아에서 기원전 3000년까지 꽤 잘 확립된 문명이 있고 그 문명의 연속적인 발전을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문명은 기원전 300

0년보다 훨씬 더 오래, 실제로는 기원전 4000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중단되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역사적 기간에 홍수를 두고 싶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의 기간은 292년에 불과하며 기원전 2300년경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Warfield는 247페이지에서 “두 족보, 특히 이 마지막 족보는 창세기 5장과 11장 모두 10개의 링크로 이루어진 그룹에 대칭 배열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압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따르면, 창조와 아브라함의 탄생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는 20대와 2000년 대신에 200대와 20,000년 정도, 심지어 2,000세대, 200,000년 정도가 개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는 날짜를 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Warfield는 실제로 이러한 것들 중 일부의 고대성은 다른 사람들보다 덜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확립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 정보로는 그것을 설정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상태에 있었는지 또는 이 한도까지만 갈 수 있고 해당 한도까지 갈 수 없었는지 잘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작업하고 있는 자료의 성격 때문에 그것은 모두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은 창조 사건이나 홍수에 대한 날짜를 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인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워필드의 결론 - 성경 자료는 창조부터 홍수까지의 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데 전혀 지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자료는 세상의 창조와 대홍수 사이, 그리고 대홍수와 아브라함의 생애 사이의 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데 전혀 지침이 되지 않습니다. 경전의 주장에 관한 한, 우리는 이 사건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개입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진술이고,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관한 한, 우리는 이 사건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즉, 창조 날짜를 정하고 싶다면, 홍수의 날짜를 정하려면 성경적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이터가 암시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신학적 문제도 아니고, 성경 해석 자체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료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계보 자료를 연대순 목적으로 강제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성경 외의 자료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나는 당신이 질문에 들어갈 때 젊은 지구인과 오래된 지구인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인간의 기원 날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날짜에 대해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창조된 때와 비교하여 인간이 지구에 어느 시점에 나타났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젊은 지구인과 오래된 지구인은 지구의 지질층과 그에 관련된 시간의 종류를 해석하려는 보다 전통적인 시도와 비교하여 홍수 지질학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시작합니다. 나는 그 논쟁이 확실히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의 장점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 그것은 신학적인 질문도 아니고 주석적인 질문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 점에서 나는 워필드와 그린의 나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연대와 홍수 연대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성경적 데이터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공개 질문입니다. 그것은 열린 질문이기 때문에 창조 날짜나 홍수 날짜에 대한 누군가의 견해를 정통성이나 성경적 신실성에 대한 일종의 시험으로 삼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 7. 우주 홍수?

나는 창세기 6장과 9장이 세계적인 홍수를 제시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온 땅이 덮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모든”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참조 틀 내에서 “모두”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음식을 베풀었을 때 “천하 만국이 음식을 구하러 그에게로 나아왔다”고 말하는 다른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몇 가지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홍수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어법입니다. 이제 요셉에게 음식을 사러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중해 동부 지역에 속한 나라들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세계적인 홍수에 대한 논쟁의 근거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면 다음 질문은 지질학적으로 지층에서 이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Whitcomb과 Morris와 같은 홍수 지질학자들 외에 그것에 대한 지질학적 증거를 지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층을 포함한 지구의 지각 전체가 하나의 홍수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유명한 옹호자들을 주장합니다. 해  
 홍수. 그렇다면 그것이 설득력 있는 주장인지 의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창세기 6-9  
 장에는 홍수 지질학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것이 신학적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그 문제는 지질학자들  
 사이의 논쟁이고 그들이 지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퇴적되었는지, 어떤 증거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그  
 증거로부터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지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료 중 일부를 읽었으며 홍수 지질학에는 약점이 있으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아마도 과거로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침식 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손실되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층을  
 가리키며 여기에 홍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어도 나에게서는 홍수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Warfield의 “우리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개입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의 마지막 진술을 따르겠습니다 . 따라서 해당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밝혀질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든 그것이 좋은 기반에 있는 한 유효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며 당신이 도출하는 결론은 성경 외의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8. 오래된 지구 견해는 진화론을 열어 줍니까? **학생 의견** : 그렇다면 그것은 진화론이나 기원을 열어주는 것 아닌가요?

**Vannoy의 답변** :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을 허용한다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화론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어떤 사람들은 이를 뒤집어서 진화론이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랜 기간이 있다고 해서 진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는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은 받아들이면서도 진화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학생 의견** :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그들에게 논쟁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Vannoy의 답변** : 그것은 단지 하나의 요소, 즉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그 밖에도 함께 협력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 의견** : 이 계보는 독특합니까? 즉, 이 시대의 다른 계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독자들은 이 부분에 공백이 있다고 이해했을까요?

9. Vannoy의 답변: 성경보다 더 많거나 적게 말하지 마십시오

**Vannoy의 답변** : 제 생각에는 과학적 발견이 지구의 지층과 같은 것을 조사하고 시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시작하고 물론 진화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질문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즉, 과학적인 데이터와 나는 진화론을 포함하지 않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성찰하도록 강요했으며 이것이 확실히 이것이 진화론적인 내용을 이해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간격이 없는 연대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과학이 부당한 방식으로 성경을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반면에 과학적 발전은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실제로 말하는 것보다 더 많거나 적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을 읽어서 잘못된 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그리고 사용된 용어인 “아들” , “곰” , “ 낳다” 를 볼 때 그리고 다른 족보를 볼 때 그리고 성경적 족보의 일반적인 성격을 볼 때, 그것이 가계를 추적하기 위해 고안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성격은 전체 목록이나 전체 목록이 아닌 압축이므로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족보를 단지 열 개의 연결 고리로 강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나는 당신이 바빌론에 이보다 훨씬 늦은 왕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계에 대한 관심은 이 시대에 독특하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B. 몇 가지 추가 고려 사항: 기원전 3000-5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집트 및 메소포타미아 문화 B. 시트에 “몇 가지 추가 고려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 단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족보를 연대기적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전통적인 창조연대를 기원전 4000년경으로

취한다면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있다. 기원전 3000년에 이 문명들로부터 당신은 메소포타미아 문화나 이집트 문화에 언어의 통일성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와 바벨탑에서의 언어 혼란이 그보다 먼저 일어났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와 바벨탑의 방언이 혼잡한 후에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은 그 전에 일어나야 하였느니라. 그런 다음 창세기 5장의 빈틈 없는 연대기와 차트를 취한다면,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일, 즉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그것을 아래로 내려와 창조 0시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3000년이 있고 1656년에 이미 홍수가 있었고 현재는 4656년이므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것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성경과 역사적 지식 사이에 충돌이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기원전 5000년부터 마을 정착촌이 있었고 예리코의 역사는 기원전 8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홍수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과학과 성경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러한 족보를 사용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연대순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 성경과 지질학을 조화시키려는 초기의 부적절한 시도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사람들은 처음에 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 책은 신학과 *과학의 전쟁의 역사(The History of the Warfare of Science with Theology and Geological Science)*라는 매우 반기독교적인 책입니다. 앤드루 디슨 화이트(Andrew Dixon White)의 *기독교계* . 그는 여기에 과학과 성경이 충돌한 모든 방식을 요약하고 있으며, 물론 자신이 성경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로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저서 *The History of the Warfare of Science with Theology and Christendom*의 201페이지에서 연대순으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성경 연대기 체계가 채택되었든 이집트는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번영했던 문명의 씨앗이었으며 그러한 홍수가 그것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가장 자유주의적인 신성한 연대기 학자들에 따르면, 이집트의 문명은 인간이 창조된 시기보다 일찍 시작되었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족보를 연대기에 활용하는 구식 연대기 체계를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도 이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글쎄, 그들은 그걸로 무엇을 했나요? 그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인용합니다. 232페이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75년에 출판된 *세계의 최근 기원*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학문에 뛰어난 독창성을 보여주는 Mr. Southhall은 이집트 문명의 초기 시대에 제시된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고고학적 발견이 잘 이해되기 전의 시기에 저명한 이집트학자가 한 다음과 같은 진술입니다. ‘이집트에는 조잡한 석기 시대, 다중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에 대한 개념이 부족합니다. .’ Southhall 씨의 방법은 족보에 있어서 고(故) Gossa 씨의 방법과 실질적으로 유사했습니다. 이 작품의 독자들은 Gossa 씨가 창세기에서 사람의 영혼의 안전은 6000년 전 어떤 불가해한 목적으로 전능자가 갑자기 나이아가라 폭포를 폭발이 일어난 바로 그 지점에 쏟아 붓게 했다는 믿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촉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쏟아지고 있고, 다양한 지층을 깔고 묻었고, 푸딩에 자두를 뿌리듯 그 위에 화석을 뿌리고, 바위 위의 빙하 빗자루를 긁었고, 세계 각지에서 미묘하고 교활하며 크고 작은 수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긴 서사시를 통한 꾸준한 과정의 결과라고 확신하도록 현대 지질학자들을 속이는 데 필요했습니다.” 즉, 나이의 모습을 지닌 창조이다. 지질학적 문제에 대한 지질학적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White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비슷한 계획으로 Southhall 씨는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으로

자신의 책 시작 부분에서 이집트의 선언이 인종 차별적 계급과 제도가 있는 메나(Mena) 시대의 높은 문명에 있었다고 제안했습니다. , 배열, 언어 및 기념물, 이 모든 것은 방대한 역사 기간을 통한 진화를 나타내는 갑작스러운 창조였으며, 이는 창조주의 손에서 완전히 만들어진 것으로, '이집트인은 석기 시대가 없었으며 문명화되었습니다 . '”

이는 조화를 이루려는 초기 시도의 한 예일 뿐입니다.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의 비극은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창세기 5장과 11장의 이 자료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오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워필드와 윌리엄 헨리 그린은 이것이 신학적 문제가 아니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종류의 궤변을 제거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지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 국가표 - 창 10 장 이것은 한 가지 추가 고려 사항이고 두 번째는 그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지리적 분포를 추적하는 국가 목록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창세기 10장은 홍수가 끝난 후와 바벨탑 사이에

위치합니다. 창세기 10장에 기술된 내용은 바벨탑 이후의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즉, 이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방언은 바벨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11장 이전에 그것을 포함시키는 요점은 단순히 9장의 끝 부분에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여기서는 노아의 세 아들의 결과가 어땠는지, 셈, 함, 야벳의 후손으로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곳에 정착했는지 추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0:21 이하를 보십시오. “셈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형은 야벳이었다. 셈은 에벨의 모든 아들의 조상이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앗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 훌, 게델, 메섹이다. 아르박삿은 셀라의 아버지이고 셀라는 에벨의 아버지이다.” 셈에게서는 앗수르와 엘람과 같은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살았던 민족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과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창세기 11장의 간격 없는 연대기를 취하면 홍수가 끝난 후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까지의 시간은 292년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단 292년 만에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엘람 사람들은 앗수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2000년 이전부터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 3. 성경은 족보의 연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고려 사항: 성서에서는 족보에 나오는 연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292년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총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연대기라면 총계를 얻을 것 같습니다. 인구 조사에서는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피한 숫자를 통해 각 부족에서 20세 이상인 남성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총계를 얻습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합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 4. 마태복음 1:2-17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2-17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원래의 간략한 제목인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42개의 링크로 나누어져 있음을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각각 14개씩 3개 단위. 그래서 그것은 도식적입니다. 예를 들어 8절을 비교해 보면 “아사는 여호사밧의 아버지요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버지요 여호람은 웃시야의 아버지요”라고 8절을 구약과 비교해 보면 세 왕이 지나갔고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웃시야의 아버지 라고 합니다 . 실제로 웃시야는 여호람의 증손자였습니다 . 그러므로 다시 “출생자” 의 사용은 “~의 조상이 되었다” 를 의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의미를 더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두 14대가 되었느니라. 14개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유배될 때까지이고 14개는 유배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두”는 이들이 살았던 “모든” 세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태가 이 도식적 배열에서 열거한 모든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8절을 열왕기하 8장 24절의 구약성서와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열왕기하 8장 24절에 나오는 여호람의 아들은 웃시야가 아니라 아하시야였고 요아스는 아하시야의 아들이고 암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이며 웃시야는 암마샤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II. 아브라함 이전의 세계 로마 숫자 III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세상.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시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우리는 다르게 기록된 역사 이전의 사건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르면 당신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역사가 세속적인 역사와 상호 연관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이 아닌 역사적 자료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우리는 성경 밖에서 다르게 기록된 역사 이전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 존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1장부터 3장까지는 창조와 타락을 다루고 있으며, 11장에서는 다양한 언어의 발달과 사람들의 분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창세기 1~3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창세기 1~11장에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A. 창세기 1:1-2:3의 우주 창조

이제 그것을 살펴보고 여기서 성경 본문을 다루기 시작하겠습니다. A.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우주 창조”입니다. 1:1에서 2:3까지의 자료의 특정 구분에 대해 논평하자면, 나는 1장의 끝에서 휴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2장에서 3절까지 이어갔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듯이 장과 절 구분은 본문에 원래 있는 것이 아니며 이후에 삽입되었으며 많은 경우 전통적으로 따라온 것보다 더 나은 중단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부분을

더 잘 구분하는 위치는 2:3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4절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구성하는 문구가 되는 문구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구는 흠정역 성경에서 “이들은 ~의 세대니라” 입니다.

창세기 2:4-창세기 50장의 톨레도 10중 구조   내가 보고 있는 NIV에는 “천지에 대한 설명은 이러하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구조에 관해서는 1:1부터 2:3까지의 창조가 있고 그것이 창세기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의 두 번째 섹션은 책 끝까지 2:4이며 10개의 섹션으로 나뉩니다. 각 사람은 “이들은 ~의 세대” 라는 문구로 소개됩니다. 그 부분 중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2장 4절 “하늘과 땅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장 1절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로 시작하고, 6장 9절은 세 번째 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NIV는 “이것이 노아의 이야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문구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 요점은 구조적으로 창세기가 책 전체에 걸쳐 정기적으로 그 문구에 의해 소개되는 자료 블록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섹션에서 구분하는 문구를 포인트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이 섹션을 나누는 지점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소개 섹션인 창작 섹션으로서 책의 나머지 부분과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에 천지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는 2장 4절부터 책 끝까지 10대에 걸쳐

이어지는 세대가 있습니다 . 1.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가르침 1. 아래 A는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가르침” 입니다. 제가 여기 1, 2, 3에서 하려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가르침, ” “우주에 관한 일반적인 가르침” ,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류에 관한 일반적인 가르침” 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한 대로 이 영역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전에 Wellhausen School과 JEDP 분석은 창세기 1장을 P 문서에 할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창세기 1장의 매우 정교한 하나님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최신 자료입니다. 더 일찍 올 수는 없었지만 늦어야만 했습니다. P 자료는 비판 학파에 따라 유배 기간 또는 유배 이후에도 작성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은 J에 할당되어 있으며 J는 가장 빠른 자료이므로 정교한 자료에서 가장 원시적인 자료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2장에 이르면 그 문제를 논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방금 언급했습니다.

1.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가르침” 에서 옳다고

가정됩니다. 1. “신의 존재가 가정됩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흥미롭습니다. 성경의 자료를 성경 외의 신화와 비교한다면, 성경 외의 신화에서 발견하는 것은 신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와 가장 자주 비교되는 이야기는 에누마 엘리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Finegan에서 이에 대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는 바빌로니아의 창조 이야기이며 그 안에는 창조되지 않은 생명체, 티아마트(Tiamat)와 엡수(Epsu)의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신들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인 티아마트과 엡수로부터 이 바빌로니아 신들의 판테온 전체가 태어나고 그로부터 발전하는 모든 가족 등이 탄생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하고 그것을 성경 밖의 신화와 대조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읽은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아름답고 장엄한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그것은 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가 추정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비. 유일신론이 전제된다      b. “유일신교가 전제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르친다. 나는 창세기 1장에서 유일신론에 대한 명시적인

이론적 종류의 가르침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르친다고 가정합니다. 나는 이미 다양한 신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경 외의 신화를 언급했습니다. 당신은 전쟁과 음모, 전투, 신들이 서로를 죽이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종류의 것들에 대해 배웁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이에 대한 어떤 힌트도 없고, 다른 신들이 언급되지 않으며 다른 신들이 있을 가능성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 단수형 [하나님] / 복수형 [신들] - 문맥에 따라 의미가 결정됩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에는 복수형 어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복수 명사형입니다. 해당 단어가 나타나는 문맥에 따라 단수 또는 복수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엘로힘* (*Elohim*)이라는 단어가 가나안 신들의 맥락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십시오. 그런 다음 작은 “g”를 사용하여 복수형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을 지칭하는 용어는 복수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수 동사 및 단수 수식어와 함께 사용되는데, 이는 언어 구조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술에서 단수 수식어가 있는 단수 동사를 선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라는

동사는 복수 동사가 아닌 단수 동사로 사용됩니다. 명사는 복수형이지만 “태초에 신들이 창조하였다” 는 것은 아닙니다 .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단수형 동사이며 명사에 수식어가 붙는 경우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단수형 수식어를 취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한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수가 신격 내의 복수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지만, 위엄의 복수로 간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Jennifer Egeberg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Rachel Ashley의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가 다시 해설함